

“비슷한 감수성에 놀랐어요”

지난 7월 시간동에 위치한 담갤러리에서 젊은 작가 3인의 전시가 있었다. 이름하여 <3자대면>. 신진 작가 정인엽 합진 유비호 등이 그 주인공으로, 그들의 작업은 3개의 모니터를 이어 보여준 싱글 채널 비디오, 진동 모터가 내장된 알루미늄판에 설치한 5백 개의 금속 모조 나비와 실제 나비, 인체를 배경으로 미니어처 인형들을 재배치한 사진작업 등 다양하다. 각기 다른 모습인 것 같지만, 자본과 꿈·욕망 등 현대사회의 단면을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보여준 이들 3인방을 만났다.

art <3자대면>이라는 전시 타이틀이 특이한데,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유비호 갤러리측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며, 우리 세 사람을 선정했는데, 서로 작품 경향이 달라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모두 고민하던 중 세 사람이 만났다는 의미로, <3자 대면>이란 타이틀을 선택했습니다. 간혹 무엇에 대한 3자 대면이라는 질문을 받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 그것을 찾는 거죠. 관객들도 찾고 우리들도 찾아보자는 생각입니다.

art 우선 이번 출품작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유 제 작업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은 자동동체입니다. 특히 최근작들은 현대인들의 집단화된 심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목도 <매스게임>이죠. 결국 자본의 자동동체적 성격으로, 자본이 자본을 낳고 권력이 권력을 낳는 그런 모습이에요. 스스로 만들어내고 생성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어떤 존재의 변태적인 느낌이 자동동체에서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은 현실에서 꿈을 찾기 위해 날갯짓을 하기 직전의 우리들 모습으로, 누군가에 의해 움직여지죠. 그리고 실제의 나비를 통해 나비로 상징되는 우리의 꿈을 표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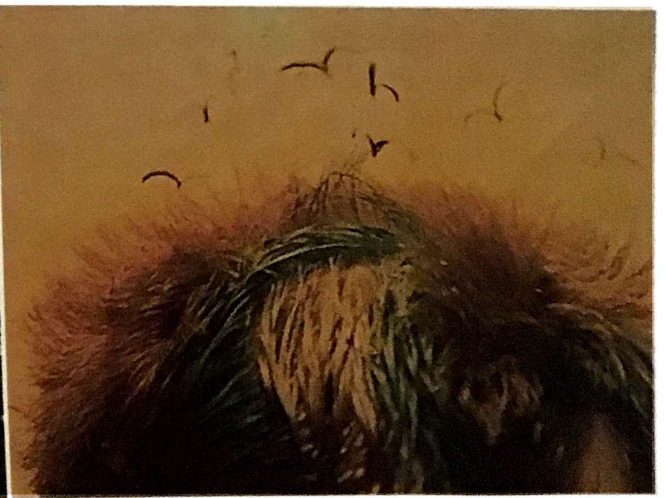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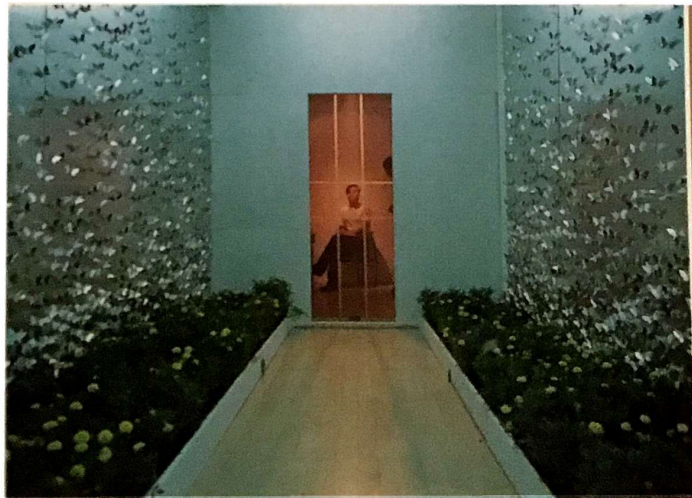
art 서로의 작업에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까?

정 비호 씨 작업을 보면 감수성이 저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비디오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르지만, 작년에 공장미술제에 출품했던 생명체를 이용하고 채집하는 것들이 특히 그래요.

유 저도 인엽 씨의 작업노트를 읽어보고 제가 쓴 글과 비슷해서 무척 놀랐어요. 저는 지금 미디어를 통해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인엽 씨는 반대로 내면적인 것들을 설치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나중에 보면

합진 제 경우에는 그동안의 작업이 미니어처 인형들을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인체로 옮겨온 거죠. 배꼽 안의 부처, 귀에서 기어나오고 있는 인형 등 특정한 신체 부위에 인형을 재배치하고 붉은 색 혹은 노란색의 셀로판지를 댄 스탠드를 조명삼아 찍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간이에요. 공간 안에서의 모습들이죠. 공간에서 인체로 옮겨왔지만 결국 사진에서 우리가 읽는 것은 인체가 아니라 미니어처 인형들이 있는 새로운 공간이죠.

정인엽 제 작업을 보신 분들이 금속으로 제작한 모조 나비와 실제 살아 있는 나비를 한 공간 안에 넣어둔 의미에 대해 자주 물어옵니다. 제 생각에 어찌면 그들은 모두 같은 이미지예요. 관객들의 움직임에 따라 센서가 작동하고 그것에 의해 알루미늄판이 떨리며 금속 나비가 움직입니다. 판에 붙어 있는 금속 나비들



서로 통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비슷해질 것 같아요. 저는 시각 이미지에 관심이 많아요.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이미지들이죠. 익숙해진 감각들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가고, 존재를 확인하면서 찾아가는 것들이죠. 사실 저도 설치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작업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웃음)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저도 설치나 혹은 인터랙티브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정 함진 씨 작업을 보면 집근은 좋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사진을 가져왔을 때 너무 어둡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더 밝고, 선명했다더라면...

함 비호 형 작품을 보면 아메바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요. 사운드도 좋고요. 저도 비디오 작업을 하려다가 중단했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시도해봤는데, 가정용 카메라로는 역부족이더라구요. 공부도 더 해야 할 것 같고 테크닉도 부족한 것 같구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 해보는 사진작업도 재미있었고, 함께 전시하면서 좁은 공간을 서로 나눠 디스플레이하는 것도 재미있었구요. 아무튼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유 함진 씨는 최근에 알았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관심사가 서로 비슷해요. 특히 상상력이 아주 좋아요. 작업 자체도 재미있고, 글을 쓸 때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면 쉽게 풀어 쓸 수 있는 것처럼, 작업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재미있으면서 뭔가 상상력을 유발하는 함진 씨의 작품을 관객들이 잘 읽고 갔으면 좋겠어요.

art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세요?

정 저는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제 기억 속에서 혹은 관객들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감수성의 작업 같은 것 말이에요.

함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생각들을 잡아서 구체화시키고 싶어요. 하나의 완성된 글이 아니라, 글을 쓴 위에 다시 쓰고, 수정액으로 지우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중첩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생각이 다듬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결과보다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진작업을 시도해보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조명도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하지만 사진작업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어설프지만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차츰 노하우가 생기겠죠. 생각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 김선주 수석기자

왼쪽페이지

위 · 왼쪽부터 정인엽 함진 유비호 씨

가운데 · 유비호 <매스게임> 3개의모니터를 이용한 싱글채널 비디오 (세부) 2000

아래왼쪽 · 정인엽 <기억의 공원> 혼합재료 (세부) 2000

오른쪽 · 함진 <밀밭에 까마귀> 매긴 손톱과 염색머리 2000